

방위산업 육성과 국가역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
방위사업청 창원이전 건의

2022. 3

- 건의처 : 청와대
국방부
방위사업청
국가균형발전위원회
더불어민주당
국민의힘
국민의당
정의당



창원상공회의소

방위산업 육성과 국가역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

방위사업청 창원 건의

I. 현황

- 방위사업청은 방위력개선 사업, 군수품 조달 및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된 업무를 소관하며, 평소 방산기업 밀집지역인 창원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임.
- 그런데 최근 제20대 대선후보 공약으로 제기되고 있는 방위사업청 이전과 관련하여, 그 후보지로 대전과 충남 논산 지역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
- 대전은 청 단위 정부기관과 국방과학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들이 위치해 있고, 충남 논산은 육·해·공군본부와 국방대학교 등 군의 지휘부 계통이 위치한 이점을 가지고 있어 이전 후보지로 언급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,
- 방위사업청의 고유목적인 방산기업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, 방위산업 기업과 관련 연구시설과의 연계를 통해 직접적인 산업이 발전된 창원이 입지로서 월등히 우수함.
- 실제로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인 창원은 육·해·공군의 방위산업 체계기업과 2,500여개 이상의 협력기업이 혼재된 전국 최대 방산기업 집적지이자, 전국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매출, 수출, 종사자수를 갖추고 있는 국내 유일무이의 방위산업 메카도시임.
 - * 국가지정 방위산업체 전국 85개 중 창원 17개(경남 28개)
[한화디펜스, 현대로템, 한화에어로스페이스, 현대위아, SNT중공업 등]
 - * 방위산업 매출액 4.2조원(전국 비중 27.3%), 수출액 0.6조(33.5%)(2020년 기준)
종사자수 12,489명(30.7%)(2017년 기준)

- 더불어 국방기술품질원 기동화력센터, 국방벤처센터, 국방과학연구소 해양기술원·기동시험장, 육·해군정비창, 재료연구원, 전기연구원 등 방위산업 연구기반시설을 두루 갖추고 있어 성장기반이 국내 어느 곳보다 풍부한 지역임.
- 무엇보다 창원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지난 2020년부터 5년 간 ‘방산혁신클러스터 시범사업’ 도시로 선정되어, 현재 방산인재 육성 및 창업지원, 수출첨단화 R&D 지원 등을 통해 세계 최고의 첨단방산클러스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.
- 이처럼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방위사업청의 핵심가치인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어, 전국 최대 규모의 방위산업 집적지인 창원이 최적지라 할 것임.
- 수도권 집중화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기관 이전은 국가 전체적인 발전 측면에서도 지역 산업의 특성에 맞게 검토되어야 더욱 이전 효과가 극대화 될 것임. 이는 전국 최대의 곡창지역인 호남지역에 농촌진흥청이 소재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사료됨.
- 더불어 창원뿐만 아니라 인근의 거제(해상), 사천(항공)과 연계함으로써 방위산업 집적 생산을 통한 경쟁력 향상은 물론 경남지역 전반에 걸친 고른 성장과 국가역량 집중화를 통한 효율성 극대화도 이룰 수 있을 것임.

II. 건의

- 방위산업 관련 국가역량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국내 최대의 육·해·공 방산 체계기업 밀집지역으로 방위산업 육성의 최적지인 창원에 방위사업청이 이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.

2022년 3월 3일

창원상공회의소 회장 구 자 천